

1920년 청산리대첩의 배경과 신흥무관학교

박 성 순*

Ⅰ 국문초록 Ⅰ

본고는 1920년 청산리대첩과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북로군정서가 조직될 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가담하였다는 통설에 더해, 북로군정서가 탄생하기까지 좀 더 다양한 이면의 사실들을 신흥무관학교의 성장 발전과 관련하여 기술하였다.

신흥무관학교와 부민단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1918년에는 서북간도의 중심인 길림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1919년 2월 길림에서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한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대한독립의군부는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으나, 조직적 무장투쟁을 위해서 길림군정사로 재편하였다. 길림군정사는 북로군정서의 직접적인 모체가 되었다.

1919년 10월 길림군정사의 군사 전략가들과 대한정의단이 합작하여 북로군정서가 탄생하였다. 대한정의단은 무장투쟁 기관으로의 변모를 꾀하였지만, 대중교나 공교회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군사전략가들이 많이 참여한 길림군정사 인사들에게 북로군정서 사령부의 요직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홍범도 부대에도 참여하였다. 서로군정서 교성대가 안도현으로 이동하면서 홍범도부대와 합류하였고, 그들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하여 청산리전투의 최대 격전이었던 어랑촌전투에서 김좌진 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1920년 청산리대첩은 단순히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연합부대가 ‘우연히’ 거둔 전승이 아니었다. 청산리대첩의 연원에는 신민회원들의 여망이 신흥무관학교로 온축되어 발전한 대한독립의군부-길림군정사-북로군정서로 이어지는 도도한 무장투쟁의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온축된 힘이 홍범도 연합부대와 협동을 통해서 청산리대첩을 통해서 발휘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청산리대첩, 신흥무관학교, 대한독립의군부, 길림군정사, 북로군정서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청산리대첩을 둘러싼 신흥무관 |
| II. 서간도 한인사회와 신흥무관학교의 위상 | 학교측 인사들의 활약 |
| III.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북로군정서의 탄생 | V. 맺음말 |

* 단국대학교 부교수 / tiger97@dankook.ac.kr

I. 머리말

청산리대첩이란 1920년 유격전을 위주로 하는 만주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대규모 일본정규군을 맞이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를 말한다. 그 정확한 전과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이 청산리대첩 직후에 상해 임시정부에 제출한 공식보고서에는 일본군 전사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기타 장교 이하 사병 1,254명으로 합계 1,257명이며 부상자는 장교 이하 200여 명이라고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은 사살 1,200여 명이라고 하였으며, 북로군정서 연성대장 이범석은 일본군 전사자와 부상자가 加納 연대장을 포함해서 약 3,300명이었다고 추산하였다.¹⁾

청산리대첩과 신흥무관학교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 청산리대첩의 중심 부대였던 북로군정서 설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봉오동, 청산리의 전승과 수시로 있었던 국내 진공작전은 거의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중견 무관에 의하여 진지하게 수행된 독립전쟁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일찍이 언명한 것은 이현희의 「신흥무관학교 연구」였다. 그러나 심도있는 연구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언명에 가까운 것이었다.²⁾

청산리대첩에서 전공을 세운 독립군의 배경으로서 신흥무관학교를 주목한 것은 서중석의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이었다.³⁾ 그러나 청산리대첩의 전사로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전개과정을 주목했을 뿐 아직도 역사적 존재의 직접적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측과 북로군정서와의 연관관계 및 청산리대첩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다루려고 한 것이 「후기 신흥무관학교」라는 글이었다.⁴⁾

위 연구들은 신흥강습소의 출범이 실질적인 무관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고, 백서농장과 신흥무관학교 분교 등의 설립으로 청산리대첩에 대비한 신흥무관학교 측의 역량이 온축되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신흥무관학교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고, 청산리대첩이라는 무장투쟁의 전사로서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흥무관학교와 청산리대첩의 연관 관계를 다룰 때 신흥무관학교 출신 졸업생이나 교관들이 북로군정서 설립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정도의 인식에서 크게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청산리대첩을 무장투쟁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배경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흥무관학교 - 대한독립의군부 - 길림군정사 - 북로군정서의 계승관계에 주목하여 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청산리대첩과 신흥무관학교 측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이범석, 『우등불』, 삼육출판사, 1994, 83쪽; 신용하, 「대한(북로)군정서 독립군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251쪽.

2)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동양학연구소, 1989.

3)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4) 서중석, 「후기 신흥무관학교」,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II. 서간도 한인사회와 신흥무관학교의 위상

1. 민단조직과 신흥무관학교

신민회의 독립전쟁전략에 따라 해외에서 무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1910년 말부터 서간도 이주가 시작되었다. 1911년 4월 이회영·이시영·이동녕·이상룡·김대락 등이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 민단조직인 경학사를 설치하고 이상룡이 사장에 취임하였다.⁵⁾ 그리고 경학사의 부속 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여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하였다.

신민회원들은 경학사를 추가가에 창립한 후 각처에 小學堂을 설립하였다.⁶⁾ 그 수가 수십 개를 넘다 보니 매년 졸업을 하는 사람이 백여 인이나 되었고, 소학을 마치고 나면 중등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애초에 신흥강습소를 중등과정으로 설립하였다.⁷⁾

이처럼 신흥무관학교⁸⁾는 유하현 정착 이후 초등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한인들의 지역 거점역할을 담당하였다. 1918년 무렵 경학사-부민단을 거치면서 한인들이 서간도 유하·통화현에 설립한 소학교들은 ‘서른 곳’에 달했다.⁹⁾ 1916년 당시 서간도 한인 학교는 총 76개 교에 학생 수는 2,177명이었다. 이중 신흥무관학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통화현과 유하현의 학교 수는 30개 교, 학생 수는 1,287명이었다.¹⁰⁾ 이는 1918년 무렵 한인들이 설립한 소학교가 30개였다는 이상룡의 회고와 일치한다. 이 학교들은 신흥무관학교에 신입생을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하급 교육기관들이었다.¹¹⁾

1917년 일제 첩령(요녕성) 영사관 조사 보고에 의하면, 유하현 삼원포를 중심으로 부근의 한국인 호구 수는 2백, 인구수는 6, 7천 명에 달했다. 이들을 기반으로 신흥무관학교 소재지인 유하·통화 및 그 인근인 휘남·해룡 등 4현의 소학교와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공통으로 병식체조, 즉 군사학을 가르쳤다.¹²⁾

1917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삼원포에서 유하·통화·휘남·해룡 등 4현 각지 학교의 연합 대운동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가한 학생 수는 무려 2천 3, 4백 명에 달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일정한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목총을 들고 병식 체조를 하는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그것을 관전하던 지방 한인들의 찬사를

5) 이상룡, 『石洲遺稿』 권5, 「趣旨文」; 『石洲遺稿』 권2 詩, 「滿洲紀事」 2, “原註-辛亥年 結耕學社 設新興講習所 以軍師學術 教練青年.”

6) 권상규, 「(이상룡)행장」,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156쪽.

7) 이상룡, 「정유하현지사문」,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555쪽.

8) 신흥무관학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흥강습소로 시작하여 신흥중학교를 거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신흥중학교 시절에는 大東중학교 또는 養成중학교도로 불렸다. 그러나 명칭이 어떻든 당시의 독립운동자나 학생들, 주민들은 이곳이 무관학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고 불렀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179쪽). 따라서 본고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흥무관학교’라고 범칭할 것이다.

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217쪽.

10) 조선주차현병대사령부, 「鴨綠江對岸地方之部 其ノ二」(1916.12)

11)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고려서림, 1984, 25쪽.

12) 이상룡, 「정유하현지사문」,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555쪽.

받았다. 이들을 지도한 것은 신흥무관학교에서 파견한 교원들이었다.¹³⁾

서간도 유하현에서 처음에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운영한 민단기관은 경학사였다. 경학사는 그후 공리회-부민단-한족회로 발전하였고, 서로군정서를 조직하여, 신민회 이래 무장투쟁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부민단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하다. 부민단이 1912년에 설립되었다는 설이 주로 받아들여져 오는 가운데,¹⁴⁾ 1916년에 설립되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초대 경학사 사장을 역임한 이상룡이 1916년에 부민단을 설립하였다고 명시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¹⁵⁾ 그밖에 1913년에 김동삼·여준·李沍 등에 의해서 조직되었다는 설도 있다.¹⁶⁾ 또 이강훈은 왕삼덕 등이 경학사 정신을 이어받아 共理會를 조직하였고, 1914년 7월 부민단을 조직할 때 공리회도 합류하였다고 하여 1914년설을 주장하였다.¹⁷⁾

이에 대해서 서중석은 1912년 경부터 민호를 배정하고 구역을 정해서 자치제를 실시하다가 1913년 경 경학사가 소멸된 후로는 다섯 개 구역별로 나누어 자치를 하였는데, 이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것을 1916년쯤 통합하여 정식으로 이주민 통합자치단체인 부민단을 만든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¹⁸⁾ 조동길은 아예 경학사(1911~1913)-공리회(1913~1916)-부민단(1916~1919)-한족회(1919)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부민단이 1916년에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¹⁹⁾

정확한 설립 연도는 여하 간에, 부민단은 한족회를 거쳐 서로군정서라는 군정부가 탄생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부민단에서 1916년 3월 16일 2백 명의 용사로 결사대를 조직한 것이다.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山獵隊라고도 불렸다. 일제가 부민단원의 주요 근거지인 통화에 영사 분관을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서 상당한 저항을 도모하였다.²⁰⁾

결사대 결성을 주도한 인물은 1916년 당시 통화현 합니하 소재 養成中學校(신흥무관학교의 이칭²¹⁾)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임필동이였다. 또 당시 결사대 대장은 신흥강습소 설립 인사 중 한 사람인 김동삼이였다.²²⁾ 김동삼은 1911년 서간도로 망명하여 이시영·이동녕·이상룡·윤기섭·김창환 등과 함께 경학사·신흥강습소·부민단을 설립하였고, 백서농장의 庄主와 서로군정서의 참모장을 역임하였다.²³⁾ 요컨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에서부터 부민단과 결사대, 한족회와 서로군정서는 신민회원들이 조직한 서간도 민단조직과 신흥무관학교가 한 몸처럼 결속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1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165) 機密公 第21號 柳河縣地方朝鮮人ニ關スル調査進達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4) 부민단의 1912년 설립설은 『독립신문』(1919.11.1),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비사』, 애국동지원호회의 『한국독립운동사』, 김승학의 『한국독립사』, 원병상의 수기 등에서 제시되어 연구자들도 이것을 많이 받아들였다.

15) 이상룡, 『石洲遺稿』 권2 詩, 「滿洲紀事」 7, “原註-丙辰(1916)設扶民團 爲統合自治.”

16)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고려대학교출판부, 1974, 49쪽.

17) 이강훈, 『무장독립운동사』, 서문문고, 1975, 75~76쪽.

18)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21쪽.

19) 조동길, 『우사 조동길 저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127쪽.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排日鮮人祕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8쪽.

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115·130쪽;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41쪽.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排日鮮人祕密團體狀況取調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4, 128쪽.

2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4, 「김동삼」, 1987.

2. 1914년 이후 신흥무관학교의 부상

서간도 민단조직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1914년 무렵부터였다. 1912년에는 한인들이 세금 없이 비옥한 토지를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山田을 개간하려 산림에 들어갔다가 반년 후에 수토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아픈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1914년 봄부터 중국인들로부터 처음 평지를 빌려 논을 일궈 벼농사를 지었고, 이로부터 질병이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²⁴⁾ 1914년에 거듭되는 천재로 인해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둔전병제를 실시했다는 원병상의 회고와 종합해 보면,²⁵⁾ 이 시기부터 둔전병제를 통한 벼농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자생의 기반을 확보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룡과 김형식 등은 수전을 개간하고 지도하여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유하현 대사탄에 廣業社를 조직하였고, 삼통하 강안의 저습지를 조차하여 수전을 개간하였다. 서간도지방에 맞는 법씨를 구하기 위하여 이 북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홋카이도 아오모리[靑森]의 종자도 가져왔다. 수전 개발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철공장도 각처에 세웠다.²⁶⁾

1914년 가을부터 신흥학우단이 통화현 제8구 팔리초구 소복차에 인력과 물자와 금력을 동원해서 수천 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병영인 백서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도, 1914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졌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군영인 백서농장의 조성은 변화하는 1914년도의 분위기와 관계가 깊었다.

1914년부터 서간도 신흥무관학교가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일본의 요청을 수용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권업회 같은 각종 단체를 해산시켰다.²⁷⁾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피해 중국 영토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장차 독립운동을 위한 ‘策源地’는 서간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한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²⁸⁾

일제측 자료에 의하면, 이때 서간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은 이시영이었다. 이시영은 1913년 일제경찰이 체포하려 온다는 첩보에 따라 북경으로 피신하였으나, 다시 서간도로 잠시 돌아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운동의 책임지로 부각된 서간도 독립운동세력을 통합하였다.

1914년 이시영은 서간도에 있는 여러 개의 한인 자치단체를 통합하였는데, 그 본부는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통화현 합니하에 두고, 명칭은 중앙교회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통령이 되었다. 중앙교회라고 명명한 것은 기독교를 앞세워 일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고, 동시에 미주지역 동포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도

24) 이상룡, 『石洲遺稿』 권2 詩, 「滿洲紀事」 4.

25)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고려서림, 1984, 24쪽.

26) 이태형, 「김형식 약전」(원고본) 4, 2000;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16쪽 재인용.

27)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독립기념관, 2009, 265쪽.

2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平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14.10.25), 국사편찬위원회, 2003, 440쪽.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민회의 지회가 되었음을 선포하였다.²⁹⁾ 당시 일제 경찰은 이시영이 “특별히 신흥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일면 무관학교라고 칭하고 항상 불온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파악하였다.³⁰⁾

이시영이 통화에 자리를 잡자, 서간도는 물론이고 북간도 및 연해주 방면 인사들도 이시영을 중심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북간도와 연해주 방면에서는 이상설과³¹⁾ 이범윤이³²⁾ 연락을 담당하였다. 서간도에서 이시영과 연통하면서 활동하던 주요 인물로는 유하에 곽문, 회인에 윤세복, 해룡에 이상룡·이봉희 등이 있었고, 또 ‘운동자’(적극적 핵심인물)로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인 김대락·여준·박종경이 활약하였다.³³⁾

또 독립운동의 요충지였던 안동현 구시가에 거주하는 이세영·맹보순·최치훈, 접리수에 거주하는 안효제·노상의 등도 직접, 또는 임방을 매개로 하여 이시영과 서로 연락을 통하고 있었다. 이들은 안동현에서 활동하던 신흥무관학교 측의 중요한 연락책들이었다. 1913년 3월 경 맹보순이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인 이회영·이시영·이동녕·장유순·김형선 등에게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일제 형사대가 급파된 사실을 알려주고 피신을 도운 것도 그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³⁴⁾

일제도 이런 기미를 눈치 채고, 이시영을 중심으로 한 서간도 독립운동가들이 북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 노령의 동지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매월 수차례 서신을 왕복하는 외에 1개월에 2, 3회 각지로부터 서간도에 사자를 파견하여 교통을 도모하고 있으며, 러일·미일 개전의 기회를 틈타 거사를 일으킬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³⁵⁾

1918년 길림에서는 부민단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한족생계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무렵부터는 일찍이 신흥학교 교장과 부민단 교육회장을 역임한 여준이 서간도지역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1913년 일제경찰의 신흥무관학교 관계자에 대한 체포기도와 이에 따른 지도급 인사들의 피신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때 피신한 이회영·이시영 등과 여준은 어려서부터 함께 수학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고, 신민회를 거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기까지 독립운동의 방략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913년 안동현 연락기관 맹보순으로부터 일제가 이회영·이동녕·장유순·이시영·김형선 등을 암살하거나 체포할 목적으로 형사대를 만주로 파견하니 피신하라는 연락이 왔다. 이와 유사한 연락은 이상설로부터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1914.12.28), 국사편찬위원회, 2003, 476쪽.

30) 위의 자료, 476쪽.

31) 이정규, 『又觀文存』, 삼화인쇄출판부, 1974; 이관직, 『우당 이회영전』, 을유문화사, 1985;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98.

3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排日思想ヲ有スル朝鮮人狀況報告」(1914.8.6), 국사편찬위원회, 2003, 394~395쪽.

33) 위의 자료, 476쪽.

34) 대부분의 연구물에서 당시 맹보순을 수원 거주자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관직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때문으로, 사실상 맹보순은 1911년부터 안동현에 거주하면서 신흥무관학교 측의 연락기관으로 활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순, 「孟輔淳의 『東田文集』 편찬과 잊혀진 獨立運動史」,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참조.

3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1914.12.28), 국사편찬위원회, 2003, 475~476쪽.

도 왔다. 이동녕 등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이상설과 합류하자고 했지만, 이회영은 오히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군자금 모집한다면서 국내로 들어갔다. 이동녕 등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시영은 봉천을 거쳐 북경으로 가 중화민국 대총통이 된 원세개를 만나 동삼성의 한인 문제를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다.³⁶⁾

그후 이회영, 이시영 형제는 광무황제의 망명 사업을 추진하느라 상해에서 조직된 신한혁명당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바람에 서간도와는 자연 멀어지게 되었다. 이시영은 이듬해까지 서간도와 북경을 왕래하였으나, 결국 가족들을 서간도에 남겨둔 채 아예 북경 쪽으로 넘어갔다. 이회영은 1915년 신한혁명당 외교부장 성낙형과 국내로 잠입하여 광무황제 망명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일경에 체포되었다.³⁷⁾

이회영은 1918년에 또다시 광무황제 망명을 위해 서울에 잠입하여 민영달에게 광무황제 거소 마련 자금 5만 원을 후원받아 북경에 있는 동생 이시영에게 보내고, 광무황제에게 접근하는 데도 성공하여 망명이 곧 성공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19년 1월 광무황제가 급서하는 바람에 계획이 좌절되었다.³⁸⁾

서간도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운 여준은 어릴 적부터 이회영, 이시영 형제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그들을 결속시킨 중심인물은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여 광무황제의 망명작전을 시도했던 이상설이었다.³⁹⁾ 비록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공이 컸던 이회영·이시영 형제 등이 서간도를 떠났지만, 그들과 어릴 적 죽마고우였던 여준이 온축된 신흥무관학교의 역량을 바탕으로 점차 길림지역으로 지배력을 확대하여 갔다.⁴⁰⁾ 이는 서간도에 있던 부민단의 편재성을 극복하고 서간도와 북간도 세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1918년 중국 관현들조차 한국독립회라고 애칭했던 동삼성한족생계회를 길림에서 조직하고 여준이 정회장에 선출되었고, 1919년에는 부민단 단총을 지낸 李沔을 위시해 임방·여준·김동삼 외 34명의 신흥무관학교측 인사들이 독립투쟁에 필요한 청년과 군자금 모집을 위해서 길림에서 생기회사가 조직되었다. 사장은 부민단 의사부장을 역임한 임방이었다.

이처럼 부민단의 활동이 길림 지역에까지 미칠 정도로 활발해지자, 신흥무관학교 인근 지역인 환인·집안현 내에 산재한 친일단체인 조선인조합 지부 중에서는 부민단의 위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부의 사무를 폐하고 부민단 사무에 종사하는 지부까지 생겨났다. 또 종래 친일적 경향이 있는 이주 한인들도 지방여행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다.⁴¹⁾ 여준은 이와 같은 저력을 바탕으로 길림에서 청산리대첩의 주력부대였던 북로군정서의 뿌리가 되는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무장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된다.

36)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97쪽.

37) 김정주 편, 『한국통치사료』 8, 한국사료연구소, 1971, 630~671쪽; 이관직, 「우당이회영선생실기」(독립기념관소장 필사본), 86쪽.

38) 이정규, 『又觀文存』, 삼화출판사, 1974, 37~38쪽.

39)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84, 12~13쪽.

40) 박성순, 「1910년대 후반 呂準의 활동을 통해 본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 측의 동향」, 『동양학』 7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9.

41)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독립운동에 관한 건(국외 제52보): 압록강방면」(1919.4.26).

Ⅲ. 대한독립의군부의 조직과 북로군정서의 탄생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의 위력이 점차 서·북간도의 중심지역인 길림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차 청산리 대첩의 주력부대였던 북로군정서의 모체가 되는 대한독립의군부가 여준을 중심으로 1919년 2월에 결성되었다. 1918년 말 파리강화회의의 대표 파견과 이를 후원할 국내의 독립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여운형이 먼저 길림에 있는 여준에게 독립운동 개시의 전말을 통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9년 1월 21일(음 1918.12.20) 상해의 신규식도 봉천에 있던 정원택에게 밀서를 보내, 파리강화회의에 맞추어 만주에서도 독립운동자들을 결집시켜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대한독립의군부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⁴²⁾

신규식의 밀서를 받은 정원택은 이를 후인 1919년 1월 23일(음 1918.12.22) 곧바로 길림으로 출발하여 1월 24일 중국 객잔에 머물고 있던 박찬익을 찾아갔다. 그리고 휴대한 신규식의 밀서를 보여주며 미주·상해 및 국내 유지의 비밀활동을 언급하고 서북간도 간에 연락방법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1919년 2월 27일(음 1.27) 여준의 집에서 대표적인 만주지역 독립운동자들을 망라한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⁴³⁾ 이날 회합에 참여한 인물들은 박찬익·조소앙·황상규·김좌진·박관해·정운해·송재일·손일민·성락신·김동평·여준·정원택 등이었다.⁴⁴⁾ 여준이 대한독립의군부의 총재로 추대되었고, 총무 겸 외무에 박찬익, 재무 황상규, 군무 김좌진, 서무 정원택, 선전 겸 연락에 정운해가 피선되었다.⁴⁵⁾

대한독립의군부에서는 우선 한국독립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전해진 3.1운동의 여파에 호응하여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2일(음 2.1) 조소앙·정원택 등이 기초하여, 3월 11일(음 2.10)에 4천 부를 인쇄하여 서북간도와 러시아령, 구미 각국 및 북경·상해와 국내, 그리고 일본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⁴⁶⁾ 「대한독립선언서」의 발기자 39명 중 김동삼·여준·이동녕·이상룡·이세영·이시영·이탁·허혁·박찬익·임방·황상규·김좌진 등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들이었다.

파리강화회의의 성공을 위한 조치로 대한독립의군부에서 비록 독립선언서를 작성 배포하였지만, 대한독립의군부의 원래 목표는 무장투쟁이었다. 선언서 말미에 ‘起하라 독립군아 齊하라 독립군아’라는 격렬한 연사로 독립군의 결기와 함께 ‘살신성인’ ‘傾家復國’을 요청했고,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⁴⁷⁾

대한독립의군부는 길림군정사로 재편되었다. 대일항쟁을 만세시위 이상의 조직적 무장투쟁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⁴⁸⁾ 길림군정사는 1919년 3월 중순 무렵에 조직되었다. 『독립신문』 1919년 10월 7일자

42) 박성순, 「1919년 大韓獨立義軍府와 吉林軍政司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43쪽.

43) 정원택,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175·183쪽.

44) 정원택, 위의 책, 180쪽.

45) 정원택, 위의 책, 183쪽.

46) 정원택, 앞의 책, 185쪽. 「대한독립선언서」의 작성 시기가 1918년이라는 설과 함께 1919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통설처럼 자리잡아 왔다. 「대한독립선언서」 작성 시기와 관련된 논쟁의 정리는 박성순, 「1919년 大韓獨立義軍府와 吉林軍政司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46쪽 참조.

47)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여름호(통권3호), 역사비평사, 1988, 162쪽.

『吉林에서』란 기사에 “3월 중순 현재 독립선언을 위하여 성립된 만주독립군(의군부)이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단체는 소멸하고 대신에 軍政司가 성립되었다.”고 보도되었다.⁴⁹⁾ 길림군정사 주비원 재무위원을 지낸 강택진도 군정사가 3월에 조직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⁵⁰⁾

길림군정사를 조직한 인물들은 역시 여준·이상룡·박찬익·조성환·김좌진 등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었다.⁵¹⁾ 그리고 대한독립의군부와 마찬가지로 여준이 단장이 되었다.⁵²⁾ 그런데 길림군정사는 8월에 임시정부 산하의 기관이 되었다. 1919년 8월 5일 길림군정사 독판 유동열이 부하 전삼덕을 보내 군정사의 규장과 군정 진행의 양호함을 보고하였고,⁵³⁾ 길림군정사 주비원 재무부원으로 활동한 강택진도 군정사가 상해 임시정부의 관할 하에서 독립군 편성을 위해 길림에 재류하는 한국인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자백했다.⁵⁴⁾ 그 결과 1919년 8월 초에는 유동열이 독판을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⁵⁵⁾ 1920년 4월 일본측 보고에 따르면, 길림군정사는 이동휘가 총리(임시정부 국무총리⁵⁶⁾)로서 이를 관할했고, 유동열은 군사 외교를, 최우영은 총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원은 600~700명이라고 기술하였다.⁵⁷⁾

이를 보면, 길림군정사는 여준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래 임시정부의 만주 독립군부대 통합정책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예하 부대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19년 8월에는 임시정부 계열인 유동열이, 또 그 이후에는 이동휘가 지휘한 것처럼 기술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여준이 다시 지휘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길림군정사의 실제 운영자는 여준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대한독립의군부는 길림군정사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아울러 이상룡·유동열·조성환·이장녕 등 재만 한인독립운동의 중견 지도자와 군사전략가들을 영입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⁵⁸⁾ 그리고 대한정의단과 결합하여 청산리대첩의 주축 부대인 북로군정서를 결성하였다.

북로군정서는 길림군정사와 대한정의단의 합작으로 탄생하였지만, 무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길림군정사 인사들이 그 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길림군정사에는 김좌진·조성환 등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군사전략가들이 많이 참여한 반면,⁵⁹⁾ 북간도 왕청현을 중심으로 대종교도와 공교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대한정의단은 무장투쟁을 지도할 만한 역량을 지닌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

대종교 조직인 중광단이 공교회 신도들과 합작하여 만든 것이 대한정의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향이 비

48)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44쪽.

49) 『독립신문』 1919.10.7, 『吉林에서』;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98쪽.

5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2, 『강택진신문조서(제3회)』(1920.11.18), 국사편찬위원회, 2000.

5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177쪽; 『조선일보』, 1930.2.18.

5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4, 「여준」, 국가보훈처, 1987.

5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독립운동에 관한 약사」.

5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2, 「독립군자금모집11, 강택진 외 1명 군자금 모집사건」.

55) 『조선민족운동연감』(판권결락), 25쪽.

56) 金正柱 編, 『한국통치사료』 8, 한국사료연구소, 1971, 234~235쪽; 김방, 『이동휘 연구』, 국학자료원, 1999, 178쪽 재인용.

57)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其三』, 1979, 580쪽; 박환, 앞의 책, 98쪽, 각주 225번.

58) 박환, 앞의 책, 98쪽; 김영범, 앞의 책, 43쪽.

59) 『독립신문』, 1919.10.7; 박환, 위의 책, 99쪽. 국가보훈처, 『공훈록』 4, 「김좌진」, 1987에서도 김좌진이 대한제국무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록 무장투쟁 조직이긴 하였으나, 아직 무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대한정의단의 서일 등 대종교 지도자들은 군비확충의 문제를 신민회 및 신흥무관학교 계통의 무관인 김좌진·조성환·이장녕 등을 초빙하여 합작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김좌진은 신민회 청년학우회 한성연회에서 활동하다가 서간도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중핵이었던 한성연회의 이동녕·이회영·윤기섭·이규봉·장도순·이경희 등과 함께했던 一團의 주요 구성원이었고, 이장녕은 신흥무관학교의 교관 출신이었다.⁶⁰⁾

그리하여 1919년 8월에 김좌진 등이 대한정의단의 軍政會를 맡게 되고, 모집한 청년들의 군사훈련과 독립군 편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군정회는 1919년 8월 대한정의단이 무장 단체로 조직한 대한(독립)군정회를 가리킨다. 1919년 10월 대한정의단과 대한군정회를 합해서 대한군정부로 개편하였는데, 대한군정부를 창립한 주요 인물은 서일, 현천목, 김좌진, 조성환, 이장녕, 이범석 등이었다.⁶¹⁾

대한군정부는 성립과 동시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성립을 보고하고 산하 독립군 군사기관으로서의 공인을 신청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국무원 포고 제205호」로써 명칭을 대한군정부에서 대한군정서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 무렵 서간도에서 한족회·신흥무관학교가 중심이 되어 편성한 독립군 단체에게 서로군정서라는 명칭을 이미 보냈으므로, 북간도의 대한군정부에 대해서는 이와 대비하여 북로군정서라는 별칭을 지어 애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간에서는 대한군정부라는 공식 명칭보다 북로군정서라는 별명이 더 널리 애용되면서 유명해졌다.⁶²⁾

IV. 청산리대첩을 둘러싼 신흥무관학교측 인사들의 활약

1. 길림군정사의 무장투쟁 시도와 일본군의 간도 출격 유발

김영범의 주장에 의하면, 북로군정서 성립 이후 길림군정사는 대한군정서 길림분서로 재편되어, 길림군정서로 불렸다고 한다. 마치 길림군정사가 북로군정서에 완전히 예속된 것 같은 해석이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군정서로 개편된 후에도 일제 정보자료들은 길림군정사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존치된 것처럼 서술하였다는 김영범의 부가적 설명도 그런 합리적 의문에 힘을 실어준다.⁶³⁾

1919년 12월 24일 군정사 급진단원 여준·박찬익·신상무·손일민·김영일·강인보·배량 등 20여 명이 길림 虎門⁶⁴⁾ 밖 군정사 사무소에서 회동하여 비밀회의를 열었다든지,⁶⁵⁾ 1920년 3월 1일 길림 주변 거주 독립운동가 80명이 길림 파호문 밖에 거주하는 군정사 군무장 배량 집에 모여 3.1운동 기념회 및 희생자 추

60) 신용하, 앞의 글, 206~209쪽.

61) 애국동지원호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310쪽.

62) 신용하, 앞의 글, 207쪽.

63) 김영범, 「독립운동가 백민 황상규의 생애와 초상」, 『지역과 역사』 40, 부경역사연구소, 2017, 212쪽.

64) 把虎門의 탈자로 보임.

6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국외정보」, 국사편찬위원회, 2006, 91쪽.

도회를 열었다는 자료 역시 길림군정사가 독자적으로 활동했음을 뒷받침한다.⁶⁶⁾ 1919년 12월 현순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길림군정사는 서로군정서와 별도의 조직으로 병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⁶⁷⁾

1919년 10월경에는 군정사 급진단이 조직되었다. 1919년 10월 15일자 길림 총영사 森田이 內田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길림 지방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여준을 단장으로 하는 급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자, 여준과 윤세복 두 사람이 10월 12일 길림에 와서 중국 여관에 체재하면서 한인 지사를 규합하고 독립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길림영사관 20리 서남쪽 소백산 부근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였다.⁶⁸⁾

11월 18일자 관동헌병대 조사보고에 의하면, 길림을 근거로 하는 ‘독립운동 한인 수령’ 여준은 곧장 한인 독립운동세력의 근거지인 니콜리스크 방면으로 갔다가 10월 하순에 돌아올 때 러시아 군총 7백 정을 吉長線九站으로 가져와 기다리고 있던 급진단원에게 인도하여 육로로 길림성 내 牛馬行 중국 객잔 源發店에 은닉하고, 이삼 일 후 해당 총기를 화전현으로 수송하였다.⁶⁹⁾ 牛馬行은 길림군정사 본부가 있던 곳이다. 1920년 4월 당시 길림군정사의 위치는 길림성 내 牛馬行 華盛東이었다.⁷⁰⁾

이 무렵 자료상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무장단체는 소년단이다. 1919년 11월 5일자 森田 길림총영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현재 독립운동가들이 남북 만주 각지에서 비밀결사 소년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폭탄의 제조 및 암살로부터 점차 국내에 진입하여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기술로 보아 소년단은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파악된다.

이 조사보고에 의하면, 소년단 지부의 소재지는 8개 소에 달하고 총 단원은 1천 7백 명이었다. 「각지 소년단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상해본부(약 5백 명), 니콜리스크 지부(약 2백 명), 북간도 지부(약 3백 명), 서간도 지부(약 350명), 팔면둔 지부(약 50명), 하얼빈 지부(약 1백 명), 길림 지부(약 30명), 치타 지부(약 2백 명) 등 구체적인 인원수와 함께 본부 및 각 지부의 단장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각지 소년단 현황」에서 니콜리스크 지부 단장으로 기술되어 있는 田一은 의열투쟁 단체인 구국모험단 단원이었으나, 이미 1919년 9월 15일 봉천에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⁷¹⁾ 요컨대 「각지 소년단 현황」을 담은 소년단 관련 조사보고서는 길림군정사측에서 이전에 미리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문서를 일제 길림총영사관 측에서 비밀리에 입수하여 그대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여준을 단장으로 하는 급진단이 길림소년단과 곧 합체할 계획”이라는 일제측의 기술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⁷²⁾ 무장투쟁을 도모하던 길림군정사가 자신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66) 김영범, 앞의 글, 212쪽.

6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16. 현순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 1919.12.24.

68) 『불령단관계잡건 - 조선인의 부 - 재내지 9』, 「선인소요사건」(1919.12.2).

69) 위의 자료.

70)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 편 其三』, 1979, 580쪽.

7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9, 2011. 1919년 6월 상해에서 조직된 의열투쟁 단체인 구국모험단 단원이었던 전일은 1919년 9월 15일 봉천성 내 小南門 뒤 천성여관 제3호실에서 일제고관 처단 및 관청 파괴에 사용할 폭탄을 제조하다 폭발 사고로 순국하였다.

의열단을 직접 지휘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군정사는 의열단 탄생의 산실이었고,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하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 속성과정을 이수한 후 길림에 돌아와 의열단의 결성을 선포하였다.⁷³⁾

「각지 소년단 현황」에서 길림 지부 단장으로 기술된 郭敬은 郭在驤의 字로 이명은 金光三 또는 金在萬이었고,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한 핵심 인물이었으므로, 여준이 합체를 생각했던 길림소년단은 의열단을 지칭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⁷⁴⁾

길림군정사는 임시정부와의 공조관계를 유지하였다. 1920년 1월 10일 상해 임시정부 위원단 송모, 이모 양인이 길림에 도착하여 군정사 임원들에게 임시정부의 계획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임시정부가 1920년 3월 중순을 기해 국내에 진격할 계획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통신원을 파견하였고, 내외 각지에 있는 독립군이 일제히 호응하여 연락 중이라고 하였다. 군정사 단원도 급히 무기의 조종법을 습득하여 2월 하순 서간도에 독립군의 집합을 마치고 임시정부의 통지를 기다려 內示를 받을 것, 그런 후 군정사의 소년단·결사대·급진단이 적극적으로 본 기회에 호응하여 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결사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1월 12일 화전현·액목현 지방에 20여 명의 모집원을 파견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이동휘는 1월 하순 길림에 온다고 하였다.⁷⁵⁾

일제의 정보에 의하면, 당시 삼원포의 한족회 및 독립단은 각지 지부와 제휴하여 청년을 모집하고 주야로 병식조련에 열심이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동휘 명의로 다수의 군총이 배급되고 있었고, 1920년 3월 한국 내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에 호응하여 기세를 떨치고 국내를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었다.⁷⁶⁾ 또 다른 일제 정보에 의하면, 동녕현 중려 국경 지방에 있는 독립군 3백 명이 각자 총기를 휴대하고 3월 23·24일경 여준 및 진단산(진학신)의 인솔하에 무산간도 방면을 통해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⁷⁷⁾

요컨대 임시정부는 길림군정사를 지휘하여 3.1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길림군정사는 북간도 및 노령 세력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길림군정사는 계획했던 1920년 3월 대규모 국내 진공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길림군정사의 무장투쟁 계획을 수행할 만한 자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919년 12월 24일 군정사 급진단원 여준·박찬익·신상무·손일민·김영일·강인보·배량 등 20여 명이 길림 파호문 밖 군정사 사무소에서 개최한 비밀회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재정 조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졌는데,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만 소규모의 대일항전 및 국내 진공 작전은 비록 간헐적이긴 하지만 실현되었다. 재정적 곤란을 해

7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78) 鮮人祕密結社ニ關シ報告ノ件」, 국사편찬위원회, 2005, 503쪽.

73) 김영범, 앞의 글, 214쪽.

7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8, 1990.

7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국외정보」, 국사편찬위원회, 2006, 92쪽.

7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65) 보통보 제7호」(1919.10.29).

7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261) 不逞鮮人ノ茂山間島入込ニ關スル件」, 국사편찬위원회, 2006, 291쪽.

결하지 못한 길림군정사가 아닌 서로군정서 의용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군정사 급진단의 대규모 국내진공 작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자 여준은 자신이 부독판으로 있는 서로군정서 의용군을 움직였던 것 같다. 서로군정서는 한족회라는 든든한 후원세력이 있어서 실제 작전이 가능했다.

여준이 애초에 서로군정서와 별도로 길림군정사를 운영했던 것은 서간도의 편재성을 벗어나 길림을 중심으로 서북간도의 병력을 아우르는 대군영을 조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1919년 12월 24일의 군정사 회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19년 8월 8일 서로군정서 의용군토벌대원 이구태·박문식이 집안현 삼도구의 친일 민단지부를 습격했다. 1920년 5월 5일에는 서로군정서 유격대 문학빈·김덕만 등이 여자밀정 최석언과 밀정 최의순을 평북 벽동에서 사살하였다. 1920년 5월에는 신흥학우단 소속 문상식 외 7인이 경북 친일관리의 처단을 기도하였다, 1920년 7월 28일에는 암살단원 이창덕이 평북 후창에서 후창군수 계응규를 사살하였다.⁷⁸⁾

1919년 5월 25일에는 서로군정서 의용대원이 함남 삼수 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 2명을 사살하였다. 1919년 7월 5일에는 함남 삼강 주재소를 습격하였고, 1919년 7월 9일에는 평북 강계 사무소를 습격하고, 등사판과 현금 150원을 압수하였다, 1920년 5월에는 경북 관공서를 폭파하였고, 1920년 8월에는 서울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1920년 7월에는 평북 의주에서 일경과 교전하였고, 1920년 8월에는 평북 강계에서 일제 경찰대를 습격하였다.⁷⁹⁾ 이와 같이 잦은 국내공격은 결국 일본군의 만주 독립군 추격전을 유발시켰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가 촉발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서로군정서 의용군의 국내 진입작전과 비슷한 시기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도 대담하게 감행되었다. 1919년 8월 함남 해산진에 진입하여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 섬멸했으며, 9월에는 함남 갑산 금정주재소를 습격하였고, 10월에는 평안북도 강계 만포진을 점령하고 자성군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70여 명을 살상했다.⁸⁰⁾

『독립신문』에 의하면, 1920년 3월 1일 이래 6월 초까지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 북간도 독립군이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여 소규모 전투를 치른 것이 32회에 달했다. 그리고 독립군 기습대가 일제 순경대 정탐을 격살하거나 일제 관서와 순사파출소를 파괴한 것이 34개 소에 이르렀다.⁸¹⁾

1920년 5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였다. 6월 4일 오전 5시 이들 독립군 1개 소대가 화룡현 월신강 삼둔자를 출발하여 함경북도 중성군 강양동 상류로 진입한 후 일본군 헌병 군조 福江이 인솔한 헌병순사대 1소대를 격파하고 귀환하였다. 이에 일본군 남양 수비대장 新美 중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1개 중대와 헌병순사 10여 명이 복수를 위해 두만강을 건넜으나, 6월 6일 오히려 삼둔자 서남방에서 잠복하고 있던 홍범도 연합부대에게 섬멸당했다.⁸²⁾

이에 일제는 나남에 본부가 있는 제19사단으로 월강추격대대를 편성해 홍범도 연합부대를 쫓아 간도로 들

78) 박환, 「서로군정서의 성립과 그 활동」, 『한국학보』 55, 일지사, 1989, 120쪽.

79) 박환, 위의 글, 121쪽.

80) 『조선민족운동연감』 1919.10.24.

81) 『독립신문』, 1920.12.25,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82) 『독립신문』, 1920.12.25,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어왔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봉오동전투였다.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여 명, 경상 100여 명을 내고 완전히 참패하였다. 독립군 피해는 장교 1명, 병사 3명 사망, 중상자 2명이었다.⁸³⁾

2. 청산리대첩과 신흥무관학교

봉오동전투에 이어서 한국 독립군이 대규모의 일본정규군과 싸워 큰 전공을 세운 전투가 청산리대첩이다. 청산리대첩을 거두는 데 신흥무관학교 측의 공이 적지 않았다.

먼저 청산리대첩의 중추 부대였던 북로군정서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었다.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 김좌진은 1917년 출옥 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일원이 되었고, 여준 등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과 합류하여 대한독립의군부 군무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들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자로 참여하였다.⁸⁴⁾ 북로군정서 참모장 이장녕도 신흥무관학교 교관 출신이었다.⁸⁵⁾

이밖에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나 관계자들은 북로군정서에서 일선 부대의 핵심 직책을 맡았다. 박영희는 북로군정서 사령부 부관 겸 사관연성소 학도단장, 이범석은 연성소 본부 교사와 연성대장, 김훈은 중군장교와 소대장, 백종렬은 제2학도대 제3구대장과 중군장교, 강화린은 학도단 제1학도대 제3구대장과 제1중대장서리, 오상세는 제4중대장, 이운강은 소대장서리를 맡아 북로군정서 부대를 이끌었다.⁸⁶⁾ 이밖에도 북로군정서 장병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⁸⁷⁾

또한 김좌진은 왕청현 서대파 십리평 일대에 근거지를 마련한 후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범석과 졸업생 김춘식(김훈), 오상세, 박영희, 백종렬, 강화린, 최해, 이운강 등을 교관으로 초빙하고 다수의 교재를 공급받아 사관연성소를 설립하였다.⁸⁸⁾ 소장은 김좌진, 교관은 이장녕·이범석·김규식·김홍국·최상운 등으로 1920년 9월에는 298명의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다.⁸⁹⁾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은 사관연성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가 대한정의단의 군정회로부터 독립군 창설을 위임받아 1919년 8월 서간도 유하현의 신흥무관학교와 신흥학우단에 연락하여 교관과 졸업생을 선발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흥무관학교와 신흥학우단에서는 이에 응하여 교관 이범석과 졸업생 김훈·박영희·오상세·백종렬·강화린·최해·이운강 등을 파견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 회원들이 설립한 무관학교로서, 북로군정서의 사관연성소 설립 또한 신민회 계통과 연결되었다. 사령관 김좌진은 이들을 교사와 교관으로 하여 사관연성소를 설립하였다.⁹⁰⁾

83) 『독립신문』, 1920.12.25,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8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4, 「김좌진」, 1987.

85)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1995, 46쪽.

86) 이정, 「사령부일지」, 『조선독립운동』 2, 동경: 原書房, 1967, 967~968쪽;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203쪽.

87) 김상기·채영국, 「남만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243~244쪽.

88)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신동아』, 1969.6, 30~31쪽.

8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4, 「독립군단의 편성과 그 조직」, 국사편찬위원회, 1988.

90) 신흥하, 앞의 글, 220쪽.

이미 청산리대첩 이전부터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간에 깊은 결속이 이루어졌던 것도 승리의 요인이었다. 북로군정서 사령부는 김좌진을 사령관으로 하여 신민회 계통의 지도자들이 전담했기 때문에, 김좌진 등 신민회 계통은 동일한 신민회 계통의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서로군정서·신흥무관학교와 매우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군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요안건과 사관 연성과 무기구입 등 광범위한 사항에 걸쳐 긴밀히 상호부조할 것을 협의하였고, 1920년 5월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과 서로군정서 헌병대장 성준용이 그런 내용을 담은 계약문을 타결하였다.

그 내용은 양 기관이 임시정부를 절대 옹호하며, 상호 친목을 꾀하고 군사상 일체의 중요안건은 상호협의를 하며, 양 기관의 사관 연성과 무기구입에 대하여 혹은 불의의 일에 대하여 상호부조하여 광복대업에 만전의 완성을 기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⁹¹⁾

이런 긴밀한 관계에 의거하여 1920년 7월 일본군의 수색작전으로 서로군정서가 근거지인 유하현을 떠나 안도현으로 이동하고 신흥무관학교 사관생도 약 300명이 삼인방에 주둔했을 때 서로군정서 독관 이상룡과 사령관 이청천은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에게 친서를 보내 이 사실을 긴급히 알리고 대책을 협의했다.⁹²⁾ 서로군정서 참모장 김동삼이 1920년 8월 25일에 서대와 북로군정서 사령부에 찾아와 대책을 협의하고 6일이나 체류한 후 8월 31일 서간도로 돌아간 것도 두 군정서의 협조관계를 잘 보여준다.⁹³⁾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홍범도 부대에도 참여하였다.⁹⁴⁾ 신흥무관학교 생도 등으로 구성된 교성대가 안도현으로 옮긴 것은 1920년 7월이었다. 일제가 중국 관현을 동반하여 수색작전을 펴 안동식·방기전 등 한족회 간부를 끌고 가 살해할 때 한족회,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도 대부분 피신하였다. 이때 이청천이 이끄는 교성대도 안도현으로 이동하였는데, 홍범도 부대를 만나 그들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하였다.⁹⁵⁾

북로군정서 막료였던 이정, 「진중일지」 7월 7일자에 홍범도 장군이 백두산으로 향하였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7월 12일자에도 홍범도 장군이 무산간도로 떠났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홍범도 부대와 북로군정서 간에는 청산리전투 이전부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⁶⁾

북로군정서 독립군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 위하여 가까이 이도구에 있는 독립군부대 지휘관들과 연합작전을 모색하였다. 이도구에 이동하여 주둔해 있던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신민단, 한민회군, 의민단 등은 이에 앞서 10월 1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하는 하나의 연합부대를 편성했다.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연합부대의 수뇌들은 10월 19일 묘령에서 합석하여 일본군에 대한 대항책을 결정하기 위한 연합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청산리대첩의 가장 치열한 격전이었던 어랑촌전투에서 북로군정서가 일본군과 혈전을 전개하고 있던 도중에 홍범도연합부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전투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완루구전투를 치르고

91) 『현대사자료』 「조선」 3, 「동서간도군정서연락에 관한 건」, 394쪽.

92) 이정, 「진중일지」(1920.7.29), 50쪽.

93) 이정, 「진중일지」(1920.8.25), 56쪽.

94) 박창화, 『성재 이시영 소전』, 을유문화사, 1984, 160쪽.

95)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3기획, 1994, 104쪽.

96) 이정, 「진중일지」(1920.7.7 / 7.12), 43·45쪽.

서쪽으로 이동하던 홍범도연합부대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이 일본군 東支隊의 대병력에 포위되어 혈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군정서 소대장의 긴급 연락을 받고 이를 지원하러 찾아왔던 것이다.⁹⁷⁾

홍범도부대는 김좌진부대의 백운평전투가 있었던 다음날인 10월 22일 완루구전투에서 일본군에 타격을 입히고, 같은 날 청산리전투의 최대 격전이었던 어랑촌 일대의 전투에서 김좌진 부대와 협공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홍범도부대가 일본군의 추격을 격퇴시킨 마지막 전투는 10월 25, 26일에 걸쳐 고동하 상류에서 전개되었다. 서로군정서는 이러한 홍범도 부대의 전투에 참여하여 일본군과 싸웠다.⁹⁸⁾

어랑촌전투에서 일본군은 큰 손실을 입었다. 기병연대장 加納 대좌를 비롯해서 다수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었다.⁹⁹⁾ 당시의 전과에 대해서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북로군정서 사령부는 일본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하여 모두 1,600명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변은 일본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1,300명이라고 추산했다. 박은식은 일본영사관의 비밀보고서를 인용하여 일본군의 피해가 加納 연대장을 비롯해서 대대장 2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병사의 전사자가 800여 명에 달했다고 기술했다.¹⁰⁰⁾ 상해 임시정부는 일본군 전사자를 300여 명이라고 발표했고,¹⁰¹⁾ 북로군정서 독립군 연성대장 이범석은 일본군 전사자와 부상자를 약 1,000명이라고 추정했다.¹⁰²⁾

V. 맺음말

본고는 1920년 만주 독립군을 압살하려는 일본의 대규모 정규군에 대항해서 크게 이긴 청산리대첩과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산리대첩의 주축 부대인 북로군정서가 조직될 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가담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에 더해서, 북로군정서가 탄생하기까지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면의 사실들을 신흥무관학교의 성장 발전과 관련하여 기술하였다.

신민회의 해외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의 일환으로 서간도 유하현에 신흥무관학교(당시 이름은 신흥강습소)가 건립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유하현 정착 이후 초등교육기관을 아우르는 한인들의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간도 유하현에서 처음에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운영한 민간기관은 경학사였다. 경학사는 그후 공리회-부민단-한족회로 발전하였고, 서로군정서를 조직하여 신민회 이래 무장투쟁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97) 신용하, 앞의 글, 248쪽.

98)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1995, 83~90쪽.

99) 청산리전투가 끝난 직후인 11월 13일 연길현 태평구 용포동 근처에서 간민회원과 국민회 경호부장을 지낸 金剛(본명 宋在言)이 加納 기병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加納 기병연대의 명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3, 「중국동북지방편V; 不逞鮮人金剛ノ逮捕」, 국사편찬위원회, 2007).

100)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서』 상, 단국대출판부, 1975, 672~673쪽.

101) 『독립신문』, 1920.12.25,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102) 이범석, 『우등불』, 1994, 73쪽; 신용하, 앞의 글, 249쪽 재인용.

신흥무관학교 및 서간도 민단조직은 1914년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동시에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군영인 백서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시영을 중심으로 서간도 한인자치 단체를 통합하여 중앙교회라는 것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북간도와 연해주, 서간도 지역 동지들과 빈번하게 연락은 물론 사자를 파견하면서 독립운동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신흥무관학교와 부민단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1918년에는 길림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동성한족생계회를 조직하였다. 여준이 정회장에 선출되면서 서간도지역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1913년 일제경찰의 신흥무관학교 관계자 체포기도에 따른 지도급 인사들의 피신 이후 그들과 어릴 적부터 죽마고우로서 친교를 맺어온 여준이 그 빈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여준은 길림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저력을 바탕으로 청산리대첩의 주력부대였던 북로군정서의 뿌리가 되는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면서 본격적이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1919년 2월 길림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의군부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신한청년당의 요청과 상해에서 독립운동의 대부 역할을 맡은 신규식의 밀명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역시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여준이 총재로 추대되었다. 대한독립의군부에서는 한국독립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에서 전해진 3.1운동의 여파에 호응하여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그후 대한독립의군부는 조직적 무장투쟁을 위해서 길림군정사로 재편하였다. 길림군정사는 북로군정서의 직접적인 모체가 되었다.

길림군정사를 조직한 주축 인물들 역시 신흥무관학교 측 인사들이었고, 역시 여준이 단장이 되었다. 1919년 10월 길림군정사의 군사 전략가들과 대한정의단이 합작하여 북로군정서가 탄생하였다. 대한정의단은 무장투쟁 기관으로의 변모를 꾀하였지만, 대중교나 공교회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군사전략가들이 많이 참여한 길림군정사 인사들에게 북로군정서 사령부의 요직을 내어 주었다.

북로군정서가 조직된 이후에도 길림군정사는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길림을 중심으로 만주 무장 단체를 통합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려 했지만,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여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든든한 한족회의 후원을 받고 있던 서로군정서 의용군을 움직여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여준은 서로군정서 부독판도 맡고 있었다. 의용군의 잦은 국내공격은 결국 일본군의 만주 독립군 추격전을 유발시켰고, 이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봉오동전투에 이어서 한국 독립군이 대규모의 일본정규군과 싸워 큰 전공을 세운 전투가 청산리대첩이었다. 청산리대첩을 거두는 데는 신흥무관학교 측의 공이 컸다.

먼저 청산리대첩의 중추 부대였던 북로군정서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이었다.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장 이장녕을 비롯하여 북로군정서의 중요 교관과 부대장들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대첩 이전부터 북로군정서는 서로군정서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고, 1920년 5월에는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과 서로군정서 헌병대장 성준용 사이에 상호 협조를 명문화한 계약문이 타결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흥범도 부대에도 참여하였다. 이청천이 이끄는 교성대가 안도현으로 이동하면서

홍범도부대와 합류하였고, 그들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하여 청산리전투의 최대 격전이었던 어랑촌전투에서 김좌진 부대와 협공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연합부대는 청산리전투 이전부터 치밀한 연합작전계획을 마련한 덕분에 어랑촌전투에서 加納 연대장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군을 살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1920년 청산리대첩은 단순히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연합부대가 ‘우연히’ 거둔 전승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청산리대첩을 거둔 주력부대들의 탄생에 관한 연원을 살펴보면, 독립전쟁전략에 따라 해외독립군기지를 건설한 신민회원들의 여망이 신흥무관학교로 온축되어 발전한 결과 대한독립의군부-길림군정사-북로군정서로 이어져 청산리대첩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1919.10.7, 「吉林에서」.

『독립신문』, 1920.12.25, 「北嶽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4, 「김좌진」, 국가보훈처, 1987.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4, 「여준」, 국가보훈처, 198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42, 「강택진신문조서(제3회)」(1920.11.18), 200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排日思想ヲ有スル朝鮮人狀況報告」(1914.8.6), 20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平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1914.10.25), 20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9, 「不逞者處分」(1914.12.28), 20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165) 機密公 第21號 柳河縣地方朝鮮人ニ關スル調査進達ノ件」, 200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0, 「排日鮮人祕密團體狀況取調ノ件」, 200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1, 「(378) 鮮人祕密結社ニ關シ報告ノ件」, 20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82) 국외정보」, 2006.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2, 「(261) 不逞鮮人ノ茂山間島入込ニ關スル件」, 2006.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 편 其三』, 국회도서관, 1979.

김정주 편, 『한국통치사료』 8, 한국사료연구소, 1971.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서』 상, 단국대출판부, 1975.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하, 경인문화사, 2008.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고려서림, 1984.

이관직, 「우당이회영선생실기」(독립기념관소장 필사본).

이정, 「진중일지」, 독립운동사편찬위, 『독립운동사자료집』 10, 고려서림, 1984.

정원택,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鴨綠江對岸地方之部 其ノ二」(1916.12).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독립운동에 관한 건(국외 제52보): 압록강방면」(1919.4.26).

김방, 『이동휘 연구』, 국학자료원, 1999.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박창화, 『성재 이시영 소전』, 을유문화사, 1984.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박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애국동지원호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윤병석, 『이상설전』, 일조각, 1998.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독립기념관, 2009.

이강훈, 『무장독립운동사』, 서문문고, 1975.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제3기획, 1994.

이관직, 『우당 이회영전』, 을유문화사, 1985.

이범석, 『우등불』, 삼육출판사, 1994.

이정규, 『又觀文存』, 삼화인쇄출판부, 1974.

조동걸, 『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12, 역사공간, 2010.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 문학과 지성사, 1995.

김상기·채영국, 「남만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김영범, 「독립운동가 백민 황상규의 생애와 초상」, 『지역과 역사』 40, 부경역사연구소, 2017.

박성순, 「1910년대 후반 呂準의 활동을 통해 본 부민단과 신흥무관학교 측의 동향」, 『동양학』 74, 동양학연구회, 2019.

박성순, 「1919년 大韓獨立義軍府와 吉林軍政司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박환, 「서로군정서의 성립과 그 활동」, 『한국학보』 55, 일지사, 1989.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서중석, 「후기 신흥무관학교」,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여름호(통권3호), 역사비평사, 1988.
신용하, 「대한(북로)군정서 독립군의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이현희, 「신홍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동양학연구소, 1989.

* 이 논문은 2020년 5월 22일에 투고되어,
2020년 6월 2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7월 13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Backgrounds of the Great Victory at Qingshanli in 1920 and Sinheung Military School

Park, Sung-soon*

This paper aimed for confirming the connection of Qingshanli Warfare and Sinheung Military School. Especially in addition to that when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was built many members of Sinheung Military School joined in it, I tried to write more various hidden facts to make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organized and developed.

As the capacity of Sinheung Military School and Bumindan accumulated, they spreaded out their power into Jilin City, the center of Western and Northern Manchuria in 1918. Therefore Korean Independence Headquarter of Righteous Army was organized by people related in Sinheung Military School on February of 1919. Korean Independence Headquarter of Righteous Army was reorganized into Jilin Military Headquarter for systematic armed struggle. Jilin Military Headquarter became the direct root of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In October of 1919, militarists of Jilin Military Headquarter and Korean Righteous troops together organized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Korean Righteous troops aimed for armed forces but it had to give exclusive power to members of Jilin Military Headquarter because there were nearly religious men in Korean Righteous troops.

The alumni of Sinheung Military School also participated in General Hong's armies. Student Soldiers' troops of Western Route Military Command moved into Antuxian for meeting General Hong's armies and they armed with the weapons given by General Hong's armies. Student Soldiers' troops of Western Route Military Command with arms fought in connection with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at Eorang Village Combat, the biggest battle in Qingshanli Warfare and won big victory.

A Great Victory at Qingshanli in 1920 was not an plain victory on which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and the combined armies led by General Hong Beom-do accidentally gained. We can confirm that there were continuous flow of military struggles from Korean Independence

*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Headquarter of Righteous Army, via Jilin Military Headquarter, to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 on which members of Sinminhoe made through Sinheung Military School. The explosive power was embodied in the field of Qinshanli in connection with General Hong's combined armies.

[Key Words] A Great Victory at Qinshanli, Sinheung Military School, Korean Independence Headquarter of Righteous Army, Jilin Military Headquarter, Northern Route Military Command